

[여성 인질 2명 석방]

■ 남은 인질 19명 어떻게 되나

‘수감자 맞교환’ 원칙 후퇴... 석방 긍정적

탈레반 온건과 주도권 가능성 4명 추가 석방 협상 진행설도

탈레반이 13일 한국인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한 것은 남은 인질들의 안 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탈레반이 내걸어온 탈레반 수감자 맞교환 원칙이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탈레반은 나머지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선 수감자 맞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번 석방이 인질 전체의 무조건 석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 뜻밖고 나선 것이다.

탈레반 대변인격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나머지 인질 석방은 그간 우리가 요구했던 탈레반 수감자 교환을 받아들여야 하며 1차 석방 요구자 8명의 명단을 변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나머지 인질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일부 인질 석방 결과가 한국측이 탈레반과 직접 협상을 본격화한 가운데 나온 것인 만큼 협

상에서 '모종의 진전'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의 수감자 맞교환 요구에 대해 전면 거부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탈레반측 입장 변화의 전조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탈레반측이 수감자 석방이라는 명분 대신 실질적 측면을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탈레반 내부에선 강·온 의견이 대립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아프간에 대한 강경 투쟁론과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론이 혼재된 가운데 내려진 이번 인질 일부 석방 결정은 온건세력의 주도권 장악이 가시화되는 한 단계로 풀이될 수도 있다.

이런 추세에 비춰볼 때 인질 추가 석방 가능성이 한결 높아진 게 아니냐는 선부론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인질 2명의 석방에 이어 4명의 추가 석방을 놓고 협상이 진행되



김지나·김경자씨가 석방 직후 아프간 적신월사의 차량에 탄 채 미군기지로 향하고 있다.

고 있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

이 경우 그동안의 사태 추이를 고려하면 인질들의 일괄 석방보다는 단계적 석방 쪽에 무게가 실린다. '여성인질 석방→남성인질 석방'의 수순을 밟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한 탈레반 사령관이 한국측과의 대면협상에 앞서 "우리는 몸값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협상 실제시 인질 살해 위협을 경고한 점은 강·온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으나 탈레반이 인질살해 카드를 완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슬람 문화에 정통한 한 전문가가 "협상이 장기화하더라도 이슬람 금식기간이자 축제인 라마단이 10월 초 시작되는 점에 비춰볼 때 그 전에는 끝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인질 2명 인도 순간

아프간 부족 원로들과 함께 가즈니시 아르주 마을로와 적신월사 관계자 보이자 스카프 두른 채 울음 터뜨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억류됐던 여성 인질 2명은 이번 사건의 중재역을 한 아프간 부족원로와 아프간 적신월사를 거쳐 한국 정부에 신병이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방 협상에 참여했던 부족원로 하지 자히르는 AFP통신에 "내가 그들의 신병을 인수받았다"고 말했다.

몸이 아파 탈레반으로부터 먼저 석방된 이들은 아프간 부족원로들과 함께 진한 회색의 도요타 코롤라 승용차를 타고 인도장소로 약속된 가즈니주 주도 가즈니시 인근의 아르주(Arzo) 마을까지 왔다. 아르주 마을은 탈레반에 살해된 고 심성민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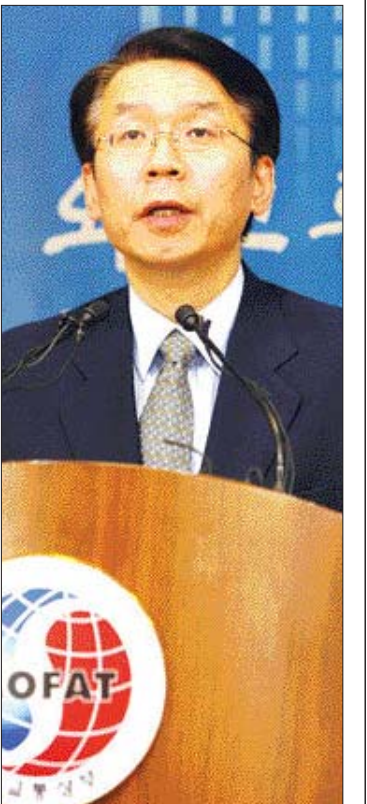
인질들은 머리 나와 기다리던 적신월사 관계자들이 시야에 들어오자 울음을 터뜨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카키색 바지 차림에 머리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 무릎에는 아프간 전통 셔츠가 놓여 있었다.

인도 광경을 지켜본 한 주민은 로이터통신에 "이들은 걸음을 걸을 수 있었고 건강도 좋아 보였다"면서 "그러나 감정적으로 북받치는지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대기 중이던 2대의 적신월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 하나로 옮겨타고 잠시 후 가즈니시(市)에 도착했다. 교통통신은 이들이 이 때 엠블럼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으며 AP통신은 이들이 가즈니시 내 미군기지로 갔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가즈니시 적신월사에서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인계됐다. 인계 장소는 미군기지 내로 추정된다.

인질 중 1명은 석방 중 AFP통신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자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청사에서 피랍자 21명 중 김경자, 김지나씨가 이날 저녁 석방됐다고 밝히고 있다.

신의 건강상태가 "괜찮다(okay)"고 말했다.

한편 한국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탈레반측 대표 2명 중 하나인 몰라 나스롤라는 두 김씨의 석방이 지연된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미 CBS방송에 밝혔다.

나스롤라는 두 김씨를 12일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경찰과 탈레반 무장세력간의 충돌로 가즈니시로 통하는 간선도로가 봉쇄되는 바람에 석방이 하루 지연됐다고 말했다.

나스롤라는 12~13일 중에는 한국측과 탈레반간에 협상이 없었으나 향후 수 일 내에 대면이든, 전화로도 양측간에 직접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지나씨 아이 좋아해 아동심리학 부전공 이수 김경자씨 만연니 차처...휴가내고 봉사단 합류

■ 풀려난 2명은 누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된 뒤 26일만인 13일 밤 처음으로 석방된 여성 인질인 김지나(32)씨와 김경자(37)씨는 지난 달 31일 알자지라 방송이 공개한 영상에 허잡을 두른 초췌한 표정으로 함께 나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평소 척추질환을 앓아온 김지나씨는 지난달 13일 아프간으로 출국할 때 진통제를 가지고 떠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에 따르면 1남1녀 중 막내 딸인 김씨는 서울에서 중·고교를 나와 숙명여대를 졸업했다. 대학 전공은 가정관리학이지만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인지 아동심리학을 부전공

으로 이수했다.

김경자씨는 지난달 29일 일본 NHK에서 고 심성민·김지나·이지영씨의 육성을 공개할 때 이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1남 2녀 중 둘째 딸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자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영어가 능숙해 각종 봉사단에서 활동했다. '아프간'이 아닌 '두바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경자씨는 휴가를 내고 봉사단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평소 샘물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로 활동했고 봉사활동 때마다 만연니 역할을 자처하며 굿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성격이었다고 지인들은 말했다.

미군기지로 이송한 후 동의부대서 정밀 진료 카불→두바이 거쳐 민항기로 인천공항 입국

■ 석방자 어떤 경로로 귀국하나

김지나·김경자씨는 가즈니주(州)의 미군기지와 동맹군 캠프인 바그람 기지 등을 거쳐 국으로 귀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단 미군 및 아프간군 경찰의 호송을 받으면서 석방지에서 가까운 가즈니에 있는 미군 대대로 이송된다. 두사람은 미군부대에서 한국군 및 미군의 의료진들로부터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새 옷으로 갈아 입고 휴식을 취하게 된다.

정부는 인질 석방에 대비해 미군부대에 아프간 과병 동의부대 소속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6명의 의료진을 미리 대기시켜뒀다. 만약 이들의 건강이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미군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검진 및 치료가 이뤄질 것

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석방된 여성들은 하루 정도 미군부대에서 머물며 치료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부대에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은 두명의 여성들은 미군이 제공한 헬기를 타고 약 250km 떨어진 카불 북부지역의 바그람 기지로 이송돼 기지 내에 있는 동의부대에서 본격적인 정밀진료를 받게 된다.

이어 바그람 기지 인근 공항에서 작전용 헬기 또는 의료 헬기로 50km 떨어진 카불로 이동한 다음 항공편으로 두바이로 이송된다. 이어 두바이에서 민항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석방자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하루 이틀이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Guilin, China, featuring scenic views, travel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for '광주작업권 세계기' and '桂林山水 甲天下'.